

초등학교 교사의 심리검사 이해도와 활용도*

구 영 하[†]

인천서면초등학교

여 태 철

경인교육대학교

이 연구는 학교에서 심리검사가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심리검사의 이용실태, 교사의 심리검사 이해도와 활용도, 그리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심리검사의 개선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과 초등학교에서 요구하는 검사도구의 방향에 대해 조사 연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검사의 주요 활용목적은 검사종류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검사는 진로·적성 검사, 인성·성격검사, 학습검사, 창의성검사, 지능검사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는 심리검사와 관련하여 검사 매뉴얼 의존도가 높았으며 T점수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교사의 심리검사 이해를 저해하는 요인에는 교사의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이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심리검사 도구에 대한 사전 교사 연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심리검사 활용도는 이해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교사의 이러한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검사 후 추후지도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검사 후 보다 구체적인 지도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교사의 상담관련 교육과정 이수 여부에 따라 심리검사의 이해도와 활용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교차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몇 가지 검사에 대해서 이해도에는 차이가 나타났지만 활용도에서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와 관련해서 교사 대상의 연수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에서 요구되는 검사도구에는 학습관련 검사와 부적응검사 등이 있었다.

주요어 : 초등학교 교사, 심리검사 이해도, 심리검사 활용도

* 이 연구는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2011)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구영하, 인천서면초등학교, (406-132)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54
Tel : 032-819-0291, E-mail : helen729@hanmail.net

요즘 교사들은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한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예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유형들이 등장하고 그에 따라 파생되는 학습결손의 장기간 누적, 인간관계의 어려움,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로 교사는 학생을 이해하고 교육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에 따라 학교에서는 상담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며 학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학생이 가진 특성과 능력을 여러 방면에서 이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발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동의 문제를 진단할 때 교사는 심리검사, 관찰과 개별 면접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면접과 관찰은 평가 과정에서 교사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 자료 활용 시 충분한 신뢰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이에 비하여 검사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은 보다 객관적이고 비교가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며 상담진행에도 효과적인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Goodyear, 1990).

초등학교는 학교교육이 시작되는 곳으로 아동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며 사회성을 기르고 학습의 기초를 다지는 기본 터전이 되는 곳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아동의 능력과 특성을 바르게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지도를 하게 되면 상급학교에서 문제를 발견하여 지도하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인지적·정서적·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아동 발달 수준을 바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조기에 개입하여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 심리검사는 아동의 특성과 발달수준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된다. 또한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는 연령층이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낮아지고 있는 현재 학교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심리검사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문제의 정확한 진단과 함께 아동의 특성과 발달정도를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발견해내는 데 심리검사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 시기의 조기 개입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심리검사결과가 잘못 활용될 경우에는 오히려 아동의 능력과 특성에 대한 낙인을 찍음으로써 아동의 발달 가능성을 제한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심리검사는 검사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검사자가 실시하거나 검사결과가 잘못 활용될 경우 사용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검사 대상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사용상의 주의가 요구되고 검사 사용자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게 된다. 학교에서 검사실시자는 교사인 경우가 많다. 교사는 검사에 대해 오랜 시간동안 교육을 받은 전문적인 검사실시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심리검사가 담임교사의 감독 하에 실시되기 때문에 검사실시자에 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교사가 어느 정도 검사 도구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결과를 바르게 해석하고 활용하는지에 따라 학교에서 사용되는 심리검사의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 초등학교는 특성상 담임교사가 거의 모든 과목을 가르치며 학급의 아동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아동을 이해하고 지도하기 때문에 담임교사가 심리검사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결과를 잘 활용한다면 초등학교에서 심리검사는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상담에서 활용되는 심리검사의 실태조사와 심리검사의 기여도를 시사하는 연구

가 있었지만 일부는 상담실을 대상으로 연구되었고(김영빈, 2000) 학교장면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는 17년 이상 오래 전에 이루어진 연구가 많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구본용, 1989; 김동일, 1995; 홍기정, 1971; 황정규, 1989).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수진, 2003)가 있기는 하지만 검사 도구의 활용실태와 관련된 인식수준의 연구이기 때문에 검사 도구에 대한 교사의 이해도와 활용도는 연구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검사도구의 이용실태와 초등학교 교사의 심리검사 이해도와 활용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학교에서의 상담기능 강조와 함께 최근 들어 상담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교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상담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들은 심리검사에 대해 기본적인 교육을 받기 때문에 심리검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교사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심리검사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김영빈, 2000; 이혜홍, 2010)가 있었지만 이는 상담실의 상담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심리검사에 대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상담관련 교육과정 이수여부가 교사의 심리검사 이해도와 활용도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지 연구함으로써 학교에서 실시되는 심리검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심리검사에서 보완해야 할 점과 초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심리검사에 대해 조사하여 초등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검사 도구가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

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에 따른 이 연구의 세부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에서 심리검사의 이용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교 교사의 심리검사 이해도와 활용도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보이는가?

셋째, 상담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초등학교 교사와 이수하지 않은 교사 사이에 검사도구의 이해도와 활용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인가?

넷째, 초등학교 교사들은 현재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리검사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인식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심리검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연구방법

사전조사

심리검사의 이용실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의 환경적 요인과 일반적인 실태를 알아보고 학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검사의 종류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조사는 심리검사의 이용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 지역 30개 초등학교의 심리검사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강봉규(2008), 광금주(2003), 김현주·김혜숙·박숙희(2009), 신석기 등(2007), 그리고 황정규 등(1997)의 저서와 심리검사를 시행하는 각 출판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하여 사전조사 설문지를 제작하였고 사전설문결과를 분석한 후 본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경기, 인천지역의 초등학교 교사 282명이었다.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전 학년을 맡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학년에 따라 다양한 심리검사를 경험해 보았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연구대상에서 학년구분은 하지 않았다.

교육경력으로 보았을 때 6-10년 사이가 70명으로 가장 많았고 11-15년(55명), 5년 이하(54명), 16-20년(37명), 21-25년(27명), 26-30년(18명), 30년 이상(16명) 순이었다(무응답 5명).

상담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이수 중인 응답자는 132명으로 이수하지 않은 응답자(150명)가 좀 더 많았다. 그리고 상담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이수 중인 응답자 중에서 2000년 이후에 이수한 응답자(121명)가 그 이전에 이수한 응답자(11명)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들 중에서 상담관련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7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상담관련 대학원(39명), 기타(14명),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7명) 순이었다. 기타에는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 대학, 영재상담과정의 이수 등이 있었다.

연구도구

이 연구를 위한 도구는 사전조사 설문지를 바탕으로 김동일(1995)이 사용한 대상별 면접 질문내용과 김영빈(2000)이 사용한 상담기관 기록지와 상담자와의 면접지, 김수진(2003)이 사용한 초등학교 심리검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질문지를 참고하여 이 연구의 연구문제에 맞추어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였고 교육심리학

박사 1인과 상담학석사 1인의 설문지 점검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응답자의 기본정보, 초등학교의 심리검사 이용실태, 초등학교 교사의 심리검사도구별 이해도와 활용도, 초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심리검사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인적사항으로는 경력과 상담관련 교육과정 이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문항을 제작하였다.

분석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해 통계처리 하였으며 각 문항의 전체적인 반응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고 다중응답문항에 대해서는 다중응답분석 중 이분형을 사용하였으며 상담관련 교육과정 이수여부에 따라 교사의 심리검사도구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에 차이가 생기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해석

심리검사도구의 이용실태

가. 활용목적

지능검사는 개인의 인지적·지적 기능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53.2%)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검사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개인의 학습전략 확인(31.3%)과 학습동기와 학습습관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31%)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진로·적성검사의 경우 진학 및 진로지도(76.6)에 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창의성 검사는 수월성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선발(11.7%)하는 것보다 아동의 종합적인 창의성을 평가(44%)하고 아동의 창의적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지도하는데(44.3%) 활용되고 있었다. 인성·성격검사의 경우에는 주로 아동의 성격특성을 진단하여 생활지도와 상담의 계획에 활용(74.7%)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검사도구별 사용빈도

각 검사별로 5단계 척도(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다, 낮은 편이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로 조사하여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다’ 이상으로 응답한 자료를 빈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장면에서 활용빈도가 가장 높은 검사는 진로·적성검사(79.1%)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인성·성격검사(72.5%), 학습검사(65.6%), 창의성검사(56%), 지능검사(51.8%)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심리검사 이해도와 활용도

가. 교사의 심리검사 준비도

대부분의 교사들은 검사 매뉴얼을 보고 각자 심리검사에 대해 이해(66%)하였으며 사전 교육을 받지 않거나(15.2%), 심리검사 관련 교사 연수(12.4%), 출판사 직원의 사전 연수(4.6%)를 통해 준비하는 교사도 있었다. 기타 의견(1.8%)으로는 학년부장교사에게 설명을 듣는다는 의견이 있었고 심리검사 실시 경험이 없다는 교사도 있었다. 그리고 검사 실시 전이나 검사 과정 중에 혹은 검사 후에 검사에 대해 문의 사항이 생겼을 때에 초등학교 교사들은 검사매뉴얼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거나(42.6%) 동학년 선생님들과 협의(42.6%)한다고

하였다. 이 외에 그냥 넘어간다(8.9%), 상담전문가에게 문의(3.5%), 출판사에 문의(1.4%), 기타(1.1%)로 검사 실시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나. 교사의 심리검사 이해도

다중응답을 허용하여 케이스 퍼센트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교사들이 평균(95.4%)과 백분위(90.1%)의 개념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신뢰도(87.6%), 타당도(79.1%), 표준편차(77.7%)에 대한 개념 이해도도 높게 인식되었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T점수의 개념 이해도(40.1%)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조사를 통해 조사된 초등학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검사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교사의 이해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지능검사의 경우, 초등학교 교사들은 일반 지능검사(한국심리적성검사연구소)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KIT-P 검사와 KMIS-E 다중지능 검사, KIT-e 초등지능검사, 레이븐 지능발달 검사 순이었다. 일반지능검사와 KIT-P검사를 제외한 3가지 검사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응답한 교사가 50%를 넘어 지능검사에 대한 교사의 이해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진로·적성검사의 경우 교사들은 진로적성 진단검사(한국가이던스)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았으며 종합적성 및 진로검사(대교), Holland 진로발달검사, 적성특성 종합검사(한국적성연구소), 진로·특기적성검사의 순으로 이해도가 높게 나타났다. 진로·적성검사는 제시된 모든 검사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50%미만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지능검사보

다 이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습전략검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모든 교사의 학습검사 이해도는 학습유형검사, 검사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학습종합진단검사, ITS 학습흥미검사, MLST 학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응답한 교사가 50%를

표 1. 초등학교 교사의 심리검사 이해도 (명, ()=%)

검사도구	검사의 내용과 결과의 이해정도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	이해정도가 높은 편이다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	전혀 이해가 안된다
레이븐 지능발달 검사	1(0.4)	13(4.6)	52(18.6)	84(30.0)	130(46.4)
KMIS-E 다중지능 검사	4(1.4)	28(10.0)	96(34.3)	67(23.9)	85(30.4)
일반지능검사	17(6.0)	65(23.2)	122(43.4)	39(13.9)	38(13.5)
지능검사(KIT-P)	9(3.2)	36(12.8)	109(38.8)	62(22.1)	65(23.1)
KIT-e 초등지능검사	4(1.4)	17(6.2)	81(29.2)	80(28.9)	95(34.3)
진로 적성 진단 검사	15(5.3)	60(21.4)	119(42.3)	50(17.8)	37(13.2)
Holland 진로발달 검사	19(6.8)	48(17.2)	80(28.6)	66(23.7)	66(23.7)
종합적성 및 진로검사	9(3.2)	57(20.2)	103(36.5)	54(19.2)	59(20.9)
적성특성 종합검사	7(2.5)	44(15.6)	94(33.5)	67(23.8)	69(24.6)
진로·특기적성 종합검사	7(2.4)	45(16.0)	93(33.0)	68(24.1)	69(24.5)
ITS 학습흥미 검사	2(0.7)	10(3.6)	74(26.3)	89(31.7)	106(37.7)
학습종합진단검사	3(1.1)	23(8.2)	82(29.1)	73(25.9)	101(35.8)
MLST 학습전략검사	2(0.7)	16(5.7)	59(20.9)	89(31.6)	116(41.1)
학습유형검사	6(2.1)	26(9.2)	94(33.5)	77(27.4)	78(27.8)
창의성 검사	8(2.9)	42(15.1)	106(38.1)	62(22.3)	60(21.6)
MMTIC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 검사	16(5.7)	48(17.0)	73(25.9)	74(26.2)	71(25.2)
NEO 아동성격검사	5(1.8)	19(6.8)	65(23.1)	83(29.5)	109(38.8)
성격특성검사	2(0.7)	24(8.5)	84(29.8)	71(25.2)	101(35.8)
AMHI 정신건강검사	1(0.4)	8(2.8)	56(19.9)	92(32.6)	125(44.3)
SSI 학생유형검사	2(0.7)	10(3.6)	57(20.2)	85(30.1)	128(45.4)
에너지그림 심리역동 검사	15(5.3)	28(9.9)	84(29.8)	76(27.0)	79(28.0)
KPI-e 초등인성검사	1(0.4)	13(4.6)	65(23.0)	86(30.5)	117(41.5)

* 무응답을 제외한 결과임.

넘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검사는 지능검사, 진로·적성 검사에 비해 교사의 이해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사전조사 결과 초등학교 장면에서 주로 활용되는 검사는 한국가이던스에서 출판된 창의성검사 1가지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응답한 교사는 43.9%로 나타났다.

인성·성격 검사의 경우 MMTIC 성격유형검사, 에니어그램 심리역동 검사, 성격특성검사, NEO 아동성격검사, KPI-c 초등인성검사, SSI 학생유형검사, AMHI 정신건강검사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모든 검사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응답한 교사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인성·성격 검사는 학습검사와 함께 교사의 이해도가 낮은 검사임을 알 수 있다.

심리검사 이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심리검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65.4%)으로 응답한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검사 매뉴얼의 설명이 부족하고(26.8%), 검사 자체의 문제점(4.3%)으로 응답한 것이 뒤를 이었다. 기타(3.5%)로는 기타업무로 인해 아동 개인별 검사내용 결과를 분석할 시간이 부족

하다는 것과 심리검사 실시 경험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사들은 이해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심리검사도구에 대한 사전 교사 연수 실시(41.5%)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교사의 심리검사 관련 연수기회 확대(27.3%), 검사 전문가들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원 서비스 확대(15.9%),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검사 매뉴얼을 재구성(14.2%)이 뒤를 이었다. 기타(1.1%)로는 학교 현장에서 심리검사 도구 사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 교사의 심리검사 활용도

교사의 심리검사 활용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결과지만 보내는 교사들이 많이 있었으며 일부는 가정과 연계하여 전문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검사를 실시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있었다.

사전조사를 통해 조사된 초등학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검사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교사의 심리검사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각각의 지능검사, 진로·적성검사, 창의성검

표 2. 교사의 심리검사 결과 활용방법

교사의 결과 활용 방법	응답수	백분율(%)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결과지만 보낸다	133	47.2
가정과 연계하여 전문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	73	25.9
검사 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학생들을 개별지도	47	16.7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하여 학생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13	4.6
검사 시행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다.	10	3.5
기타	6	2.1

사, 학습검사, 인성·성격검사의 활용도는 이 는 교사들이 심리검사도구의 내용과 결과를
 해도의 순위와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이해도 이해하는 것과 활용하는 것이 연계되지 않고
 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3. 초등학교 교사의 심리검사 활용도 (명, ()=%)

검사도구	검사의 내용과 결과의 활용정도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활용정도가 매우 높다	활용정도가 높은 편이다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다	활용정도가 낮은 편이다	
레이븐 지능발달 검사	2(0.7)	2(0.7)	38(13.5)	86(30.5)	154(54.6)
KMIS-E 다중지능 검사	4(1.4)	12(4.3)	51(18.1)	87(31.0)	127(45.2)
일반지능검사	5(1.8)	23(8.2)	83(29.5)	66(23.5)	104(37.0)
지능검사(KIT-P)	4(1.4)	16(5.7)	54(19.1)	74(26.3)	134(47.5)
KIT-e 초등지능검사	1(0.4)	7(2.5)	39(13.9)	87(31.1)	146(52.1)
진로 적성 진단 검사	7(2.5)	33(11.7)	74(26.3)	73(26.0)	94(33.5)
Holland 진로발달 검사	7(2.5)	24(8.6)	54(19.3)	76(27.1)	119(42.5)
종합적성 및 진로검사	6(2.1)	27(9.6)	65(23.1)	68(24.1)	116(41.1)
적성특성 종합검사	3(1.1)	22(7.8)	61(21.6)	70(24.8)	126(44.7)
진로·특기적성 종합검사	3(1.1)	24(8.5)	58(20.6)	74(26.2)	123(43.6)
ITS 학습흥미 검사	2(0.7)	4(1.4)	45(16.0)	80(28.4)	151(53.5)
학습종합진단검사	3(1.1)	9(3.2)	50(17.7)	72(25.5)	148(52.5)
MLST 학습전략검사	3(1.1)	8(2.8)	37(13.1)	83(29.5)	151(53.5)
학습유형검사	3(1.1)	8(2.8)	61(21.7)	74(26.4)	135(48.0)
창의성 검사	2(0.7)	21(7.5)	61(21.7)	74(26.3)	123(43.8)
MMTIC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 검사	7(2.5)	22(7.8)	59(20.9)	66(23.4)	128(45.4)
NEO 아동성격검사	2(0.7)	13(4.7)	34(12.2)	75(26.8)	155(55.6)
성격특성검사	2(0.7)	8(2.8)	45(16.0)	74(26.2)	153(54.3)
AMHI 정신건강검사	1(0.4)	2(0.7)	32(11.3)	80(28.4)	167(59.2)
SSI 학생유형검사	1(0.4)	4(1.4)	26(9.3)	84(30.0)	165(58.9)
에너지그램 심리역동 검사	4(1.4)	12(4.3)	38(13.4)	84(29.8)	144(51.1)
KPI-e 초등인성검사	1(0.4)	4(1.4)	28(9.9)	79(28.0)	170(60.3)

* 무응답을 제외한 결과임.

교사들의 검사결과 활용도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추후 지도에 대한 방법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39.1%)과 제시된 검사결과에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부재(36.3%)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사를 실시해 본 적이 없고(11.4%) 검사내용과 결과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며(8.9%) 검사 신뢰도가 낮기 때문(3.2%)이라고 응답한 것이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1.1%)으로는 검사결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교사에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사들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요인으로 보다 구체적인 지도방법에 대한 이해(48.9%)를 우선으로 보았으며 교사의 심리검사 관련 연수기회 확대(25.4%)와 검사 전문가들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원서비스 확대(20%), 검사 도구의 신뢰도 점검(3.9%)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교사의 검사도구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심리검사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전문가들의 조력 등 교사에게 대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기타 의견(1.8%)으로는 심리검사를 위한 금전적인 지원과 심리검사의 기회 확대, 학교에서 사용되는 심리검사의 종류 확대가 있었다.

교사의 상담관련 교육과정 이수와의 관련성

가. 상담관련 교육과정 이수여부와 교사의 이해도와의 관련성

상담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 사이에 심리검사의 이해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난 검사를 중심으로 결과를 정리한 것은 표 4와 같다.

상담관련 교육과정 이수여부에 따라 이해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던 검사는 일반지능검사(한국심리적성검사연구소), Holland 진로발달 검사, MLST 학습전략검사, MMTIC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 검사, 에니어그램 심리역동 검사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관련 교육과정에서도 모든 검사에 대한 이해를 다루는 것은 아니며 검사 종류별로 주요하게 다루는 검사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지능검사와 Holland 진로발달검사는 앞의 연구 결과에서 상담관련교육과정 이수여부와 상관없이 교사의 이해도가 높았던 검사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담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 중에서도 다수가 이 두 가지 검사를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사의 MLST 학습전략검사의 이해도는 다른 검사에 비해 낮은 편이었지만 그 가운데 상담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의 이해도가 이수하지 않은 교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성·성격검사의 교사 이해도는 학습검사와 마찬가지로 교사의 이해도가 낮게 나타났던 검사였는데 상담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들의 이해도가 MMTIC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 검사, 에니어그램 심리역동 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상담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들의 이해도는 높은 편이지만 이수하지 않은 교사들의 낮은 이해도가 전체 이해도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나. 상담관련 교육과정 이수여부와 교사의 활용도와의 관련성

상담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심리검사의 활용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사의 상담관련 교육과정 이수

표 4. 상담관련 교육과정 이수여부와 심리검사 이해도와의 관계 (명, ()=%)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	이해 정도가 높은 편이다	어느 정도 이해한다	부분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전혀 이해가 안된다	χ^2 (유의확률)
일반 지능검사	이수	○	7(5.3)	43(32.6)	53(40.2)	10(7.6)	19(14.4)	17.705 (.001)
	여부	×	10(6.7)	22(14.8)	69(46.3)	29(19.5)	19(12.8)	
	전체		17(6.0)	65(23.1)	122(43.4)	39(13.9)	38(13.5)	
Holland 진로발달 검사	이수	○	12(9.1)	30(22.7)	41(31.1)	21(15.9)	28(21.2)	13.842 (.008)
	여부	×	7(4.8)	18(12.2)	39(26.5)	45(30.6)	38(25.9)	
	전체		19(6.8)	48(17.2)	80(28.7)	66(23.7)	66(23.7)	
MLST 학습전략 검사	이수	○	1(0.8)	12(9.1)	24(18.2)	33(25.0)	62(47.0)	11.444 (.022)
	여부	×	1(0.7)	4(2.7)	35(23.3)	56(37.3)	54(36.0)	
	전체		2(0.7)	16(5.7)	59(20.9)	89(31.6)	116(41.1)	
MMTIC 성격유형 검사	이수	○	10(7.6)	32(24.2)	37(28.0)	24(18.2)	29(22.0)	16.782 (.002)
	여부	×	6(4.0)	16(10.7)	36(24.0)	50(33.3)	42(28.0)	
	전체		16(5.7)	48(17.0)	73(25.9)	74(26.2)	71(25.2)	
에니어그램 심리역동 검사	이수	○	11(8.3)	18(13.6)	50(37.9)	22(16.7)	31(23.5)	24.684 (.000)
	여부	×	4(2.7)	10(6.7)	34(22.7)	54(36.0)	48(32.0)	
	전체		15(5.3)	28(9.9)	84(29.8)	76(27.0)	79(28.0)	

* 무응답을 제외한 결과임.

여부에 따른 심리검사 활용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상담관련 교육과정 이수자가 이해도와 다르게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바가 없음을 보여준다.

교사의 상담관련 교육과정 이수여부에 따라 심리검사의 이해도와 활용도에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교사의 심리검사 이해도와 활용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던 것처럼 심리검사에 대한 내용적인 이해가 그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적인 이해로 바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관련교육과정에서 심리

검사에 대한 이해는 다루고 있으나 그것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내용과 이론을 실제 사례에 접목시키는 부분은 미흡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론을 실제 사례에 적용시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험이 필요한데 상담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하여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상담관련 교육과정 이수여부에 따라 교사의 심리검사 이해도와 활용도에는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심리검사의 방향

가. 현재 실시되는 검사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

현재 실시되는 심리검사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자유 응답하도록 한 문항에 대해 비슷한 내용 별로 유목화 하여 정리한 결과 가장 많은 교사들(36.9%)이 개선점으로 제시한 것은 교사대상의 연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교사 대상 연수 가운데에서도 결과 후의 지도 방법과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다. 검사 후 전문가와의 연계지도가 요구되는 것도(7.1%) 활용방안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검사결과지에 자세한 해석과 결과활용 방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5%) 기타의 견(0.7%)으로 심리검사 결과활용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제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현재 교사들에게는 시행되고 있는 심리 검사도구의 활용방안에 대한 안내가 절실히 필요함을 이해할 수 있다. 심리검사에 대한 교사의 연수가 필요하다는 응답의 뒤를 이은 것은 검사의 실태 개선(31.9%)이며 그 다음으로는 심리검사도구에 대한 개선(12.8%)이었다. 현재 많은 초등학교에서 심리검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간혹 실시되지 않는 학교도 있으며 보다 심리검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시 시기와 필요한 검사 선정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검사실시와 활용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사들의 생각이었다. 그리고 사전조사에서 심리검사의 대상이 주로 4-6학년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 검사도구 자체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교사들은 활용도와

신뢰도가 높으며 학생 수준에 적합한 검사의 개발을 필요로 하였다. 이 외에 필요한 심리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2.8%)과 심리검사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1.4%)도 있었다.

나. 초등학교에서 요구하는 검사유형

초등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검사는 검사 종류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자유 응답한 결과를 검사 종류별로 구분한 결과 지능검사의 경우에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지능 이론들의 경향이 반영되어 다중지능검사와 정서 지능검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현재 초등학교에서 많이 시행되는 진로·적성검사는 검사 결과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여전히 강조되었다. 학교 현장에서 학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교사들은 학습관련검사의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인성·성격검사는 여전히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밖에 개발이 필요한 검사유형으로는 임상·적응 검사와 대인관계 부적응 검사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심리검사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임상적으로 진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을 지도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행동을 변화시키는 자원이 되는 가정 관련 검사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심리검사의 이용실태와 교사의 심리검사 이해도와 활용도를 파악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검사에서 보완할 점과 앞으로 요구되는 검사의 방향을 분석하여 초등학교에서 심리검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로 우선,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심리검사도구의 이용실태는 다음과 같다.

심리검사도구는 검사도구 종류별로 활용되는 목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수진(2003)의 연구에서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모든 심리검사를 대상으로 지도활용, 진단·평가, 학교계획으로 나누어 조사·연구한 것과 차이가 있다.

초등학교에서 지능검사는 개인의 인지적·지적 기능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학습검사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개인의 학습전략 확인과 학습동기와 학습습관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적성검사는 진학 및 진로지도에 주로 활용되었으며 창의성검사는 아동의 종합적인 창의성을 평가하고 아동의 창의적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지도하는 데 활용되고 있었다. 인성·성격검사의 경우에는 주로 아동의 성격특성을 진단하여 생활지도와 상담의 계획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심리검사는 주로 아동의 특성을 파악하여 지도하는 데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지도활용하기 위해서라는 김수진(2003)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

치한다.

초등학교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검사는 진로·적성검사, 인성·성격검사, 학습검사, 창의성 검사, 지능검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에는 진로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진로·적성검사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았다는 김동일(1995), 김영빈(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심리검사의 결과를 아동의 지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검사도구의 사용빈도는 높은 반면 검사결과를 통해 아동의 개인적인 특성을 파악한 뒤에 2차적인 적용방법을 찾아야 하는 검사도구의 경우에는 사용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이 결과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가 지능검사, 흥미검사, 성격검사, 인성검사, 적성검사, 창의성검사의 순으로 나타났다는 김수진(2003)의 연구와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대상의 지역적인 차이일 수도 있고 학교 현장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의 특성이 변화함에 따라 필요로 하는 검사도구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선행연구가 오래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둘째, 초등학교 교사의 심리검사에 대한 이해도와 검사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적인 이해의 정도인 활용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전조사를 통해 파악한 초등학교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는 22가지 검사를 대상으로 교사의 이해도를 분석해 본 결과 교사의 이해도가 가장 높았던 검사는 진로적성진단검사였고 그 뒤를 이어 일반지능검사의 이해도가 높았으며 종합적성 및 진로검사, 창의성 검사, 지능검사(KIT-P), Holland 진로발달검사, 적성특성 종합검사, 진로·특기적성 종합검사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해를 보였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검사는 이해도가 낮게 나타났다. 검사 종류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는 진로·적성검사의 이해도가 제일 높았으며 학습검사와 인성·성격검사는 전반적으로 이해도가 낮게 나타났다. 인성·성격검사는 교사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실제 학교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이해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교사에 의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검사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된다. 그리고 학교의 주된 기능 중 하나가 학업지도임을 고려할 때 학습검사는 많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청소년 상담실을 대상으로 한 김영빈(2000)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학습검사는 실제 활용빈도가 낮으며 그에 대한 이해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상담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는 한계가 있지만 김영빈(200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검사실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검사 관련 교육 중 학습검사 관련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의 학습검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과 그에 따라 활용도도 낮을 것임을 예상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교사들이 검사해석에 필요한 통계 관련 기본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T점수의 이해도가 다른 개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점수는 표준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 주는 표준점수 중 많이 활용되는 점수로 심리검사 결과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개념이지만 그에 대한 교사의 이해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교사들이 검사 점수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대부분 검사를 실시하기 전 사전교육의 통로로 검사 매뉴얼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초등학교 교사가 심리검사 관련 지식 습득 방법으로 주로 검사요강을 활용한다고 연구한 김동일(1995), 김수진(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검사에 대해 사전교육을 받지 않는 교사보다 관련 연수를 받은 교사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사연수의 기회가 부족한 실태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검사에 대해 문의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교사들은 검사 매뉴얼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거나 동학년 선생님들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실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영빈(2000)과 이혜홍(2010)의 연구에서 상담자들이 검사에 대한 문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동료와 상의 하거나 책과 매뉴얼을 참고한다고 연구한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상담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들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그렇지 않은 교사들이 아직까지는 더 많은 현실을 고려했을 때 검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교사들이 서로 의논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해결방법이 올바르게 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심리검사에 대한 이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교사의 전문 지식 부족을 우선요인으로 선택하고 교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심리검사에 대한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심리검사도구를 이해하기 위해 검사매뉴얼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그 방법이 효과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교사의 검사도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연수가 선행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학교에서 검사도구는 교사가 검사에 대해 이해하는 것과 함께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난다. 초등학교에는 심리검사 결과를 활용할 때 검사 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학생들을 개별지도하거나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하여 학생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전문성을 가진 교사보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결과지만 보내거나 가정과 연계하여 전문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었다. 이는 교사가 검사결과를 직접 활용하여 학생을 이해하고 지도하기보다 그 역할을 가정으로 넘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추후지도에 대한 방법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과 제시된 검사결과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중·고등학교 교사가 심리검사결과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검사결과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활용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한 김동일(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검사 후 보다 구체적인 지도방법에 대한 안내와 연수, 전문가들의 인프라구축을 통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현장에서 보다 심리검사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활용방법에 대한 안내가 절실히 필요하다. 김영빈(2000)은 심리검사 교육에 대한 문제점으로 검사결과를 상담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교육이 부재함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검사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검사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적인 이해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 활용에 대한 교육이 따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사전조사를 통해 파악한 초등학교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는 22가지 검사를 대상으로 교사의 심리검사 활용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활용도는 이해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이 검사에 대해 이해는 하고 있으나 결과를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낮은 활용도 가운데 그나마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던 검사는 이해도가 높게 나타났던 진로적성진단검사였고 그 뒤를 이어 일반지능검사, 종합적성 및 진로검사, MMTIC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검사의 활용도가 높았으며 적성특성 종합검사, Holland 진로발달검사, 진로·특기적성 종합검사, 창의성검사는 활용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MMTIC 검사를 제외하고는 이해도가 높았던 검사들이 활용도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MMTIC 검사의 경우 검사에 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만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검사임에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을 받지 않아 자격이 없는 교사들이 연수를 받은 교사들을 통해서 검사의 유용성을 전해 듣고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검사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결과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MMTIC 검사의 활용도가 이해도와 다르게 높게 제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학교에서 심리검사도구가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심리검사에 대한 이해와 함께 활용방법에 대한 이해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대학원, 교사연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과 같은 상담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들이 늘어남에 따라 상담관련 교육과정 이수여부가 교사의 심리검사 이해도와 활용도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한 결과 이해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검사는 일반지능검사, Holland 진로발달 검사, MLST 학습전략검사, MMTIC 성격유형 검사, 에니어그램 심리역동검사였다. 이 가운데 MLST 학습전략검사를 제외한 4가지 검사는 $p < .01$ 수준에서 의미있게 나타났고, 특히 일반지능검사와 Holland 진로발달 검사는 상담교육과정 이수여부에 관계없이 교사의 이해도를 분석했을 때도 이해도가 높게 나타났던 검사이다. 이는 상담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들 중에서도 많은 교사들이 두 가지 검사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담관련 교육과정 이수여부에 관계없이 교사의 이해도가 높았던 다른 검사가 사용경험과 그 외의 다른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과 달리 두 가지 검사에 대한 교사의 이해도는 상담관련 교육과정 이수로 인하여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Holland 검사를 제외하고 일반교사들의 이해도가 높게 나타났던 진로·적성 검사는 상담관련 교육과정 이수여부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검사들의 사용빈도가 높아 반복되는 경험에 의해 이해도가 향상되어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MMTIC 성격유형 검사의 경우 일정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검사 실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검사도구의 이해도는 상담관련교육과정 이수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MMTIC 성격유형검사와 에니어그램 심리역동검사는 전체 교사의 이해도는 낮았지만 상담관련교육과정 이수여부에 따른 이해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난 검사로 상담관련 교육과정의 효과성을 보여주고 있는 검사라고 볼 수 있겠다. MLST 학습전략검사는 전체 교사의 이해도가 낮게 나타났던 검사인데 낮은 이해도 가운데에서도 교사의 상담관련교육과

정 이수여부에 따라 이해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상담관련교육과정에서 학습관련 검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그 효과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담관련 교육과정 이수여부와 교사의 심리검사 활용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교사의 심리검사 활용도 분석 결과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심리검사 교육에서 검사활용에 관한 방법적인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영빈(2000)의 연구에서는 상담자들이 지각하는 심리검사교육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론과 실제 사례 간에 괴리가 존재하며 실제 활용 방법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태가 보고되었고 이해홍(2010)의 연구에서는 심리검사 교육의 개선점으로 실제 상담에 적용하는 것과 검사결과 전달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관련 교육과정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때 초등학교에서 심리검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 다만, 상담관련 교육과정 이수여부에 따라 이해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활용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심리검사 선택의 의사결정권이 교사가 아닌 관리자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현재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심리 검사에 대해 보완해야 할 점과 초등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검사에 대해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앞에서 제시한 결과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교사의 심리검사 이해도와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교현장에서는 교사 대상의 연수

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와 함께 검사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검사 결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검사 결과지와 관련하여 검사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제시하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사의 실시 횟수, 실시시기, 실시 대상학년, 학생의 특성에 따른 필요한 검사의 선택 문제, 검사 실시와 결과 활용에 대한 교육제도적인 정비 문제 등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검사 실태에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 요구하는 검사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진로·적성검사와 인성·성격검사는 그 중요성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습검사는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사의 이해도와 활용도가 낮게 나타났지만 학교 현장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학습검사의 개발과 함께 관련 연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임상·적응검사와 대인관계 부적응 검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이는 학교 현장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통한 아동의 문제 파악이 필요하며 그에 적합한 지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동의 문제 행동 원인이면서 또한 행동변화의 자원이 되는 가정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가정 관련 검사에 대한 필요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초등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검사유형은 향후 검사개발에 유용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겠다.

이 연구가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조사에 그치고 있어서 심층적인 분석이 결여되었다는 한계가 있지만, 몇 가지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검사도구의 이용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는 예비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검사도구들에 대해 사전에 이해하고 준비하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관련 연수를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되겠다.

둘째, 초등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검사도구에 대한 교사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연구함으로써 현 교사의 실태와 함께 개선이 필요한 점을 밝혔다. 교사의 이해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적인 지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사연수가 요구되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심리검사에 대한 이해와는 별개로 결과의 활용을 위한 방법적인 이해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효과적인 심리검사 활용을 위해 교사에게 지원 가능한 모든 주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셋째, 상담관련 교육과정의 이수여부에 따라 교사의 심리검사 이해도와 활용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밝혔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담관련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심리검사 이해와 활용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되며 그에 따라 교육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검사에 대해 보완해야 할 점과 초등학교에서 요구하는 검사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초등학교 심리검사에 관여하는 여러 주체들이 개선해야 할 점을 제시하였으며 초등학교에서 보다 도움이 되는 검사를 개발할 수 있도록 검사 개발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경기, 인천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역별로 대상 학교를 표집하여 보다 일반화 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서의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객관적인 검사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초등학교 현장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객관적인 검사뿐 아니라 그림검사, 문장완성검사와 같은 투사검사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활용되는 투사검사의 실태를 중심으로 연구하거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객관적인 검사와 투사검사의 실태와 교사의 이해도·활용도를 비교 연구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상담관련 교육과정을 하나의 전체로 보고 그 이수여부에 따라 나타나는 교사의 심리검사 이해도와 활용도의 차이에 대해 연구하였다. 상담관련 교육과정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각 과정의 이수여부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시사점 또한 다를 수 있다. 상담관련 교육과정의 종류에 따라 교사의 이해도와 활용도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효과성을 검증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이 연구는 심리검사가 초등학교 현장에서 유용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학교에서 심리검사가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교사의 심리검사 이해도와 활용도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였다. 하지만 연구자의 전체가 교사들의 인식과 다를 수 있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심리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정도와 그에 따른 교사의 심리

검사 이해도와 활용도의 관계를 연구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봉규 (2008). 심리검사의 이론과 기법. 서울: 동문사.
- 곽금주 (2003). 아동 심리평가와 검사. 서울: 학지사.
- 구본용 (1989). 학교장면에서의 심리검사 활용. *대학생활연구* 7, 17~46,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동일 (1995). 청소년행동평가 체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검사개발, 활용실태 및 발전방향.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김수진 (2003). 초등학교 심리검사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여수대학교.
- 김영빈 (2000). 청소년 상담에서 심리검사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김현주·김혜숙·박숙희 (2009). 심리검사의 이해. 경기: 교육과학사.
- 신석기·최태진·박성미·이은영·김유미 (2007). 심리검사의 이론과 실제. 경기: 서현사.
- 이혜홍 (2010). 개인상담 장면에서 사용되는 심리검사의 선택 및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 홍기정 (1971). 중등학교에서의 심리검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 황정규 (1989). 학교장면에서 사용되는 현행 심리검사의 문제점. *대학생활연구* 7, 47~

60,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황정규 · 이성진 · 원호택 · 임인재 · 윤정일 · 박
성익 · 문용린 · 김종택 (1997).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편). 한국교육 심리
검사 총람: 교육·심리검사의 체계적 집대
성. 서울: 프레스빌.

Goodyear, R. K. (1990). Research on the effects of
test interpretation: A review.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8*, 240~257.

- ◆ 원 고 접 수 일: 2011년 12월 16일
- ◆ 수정원고접수일: 2012년 1월 07일
- ◆ 계 재 승 인 일: 2012년 1월 12일

The Degrees of Understanding and Utiliza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Psychological Test

Yeong-ha Gu

Incheon Semyeon Elementary School

Tae-chul Yeo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research is a fundamental research to provide the foundation that psychological test can be utilized efficiently. It investigated and studied the reality of the psychological test used in elementary school, teacher's degrees of understanding and utilization of psychological test, requirements for improving the psychological test that is performed currently, and the direction of the testing tools that are required by elementary school. First, the main purpose of psychological test was different. The tests that were usually utilized in elementary schools were career inventory test and aptitude test, followed by personality test, learning test, creativity test and intelligence test in order. Second, it showed that teachers read the testing manual before carrying out the psychological test and understood it individually,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f T score showed to be the lowest. As a factor that hampered elementary school teacher's understanding of the psychological test, there was insufficiency of the teacher's professional knowledge, and it showed that the preparatory training for teachers about the tools of psychological test was necessary in order to improve this. Teacher's degree of utilization of psychological test showed to be lower than that of understanding. As a factor that influenced this kind of utilization by teachers, the lack of methodical understanding in afterwards guidance after the testing was the biggest factor. To increase the teacher's degree of utilization of psychological test, it was investigated that advice for more specific methods of guidance after the testing was necessary. Third, cross analysis was executed to find out if there was difference in the degree of understanding and utilization of psychological test according to whether a teacher completed the education course regarding counseling or not, and as a result, there was difference in the degree of understanding regarding some tests, but there was no difference found in the degree of utilization. Besides these, the point to be complemented in psychological test that was currently executed elementary schools and the direction of the testing tools that elementary schools require were investigated.

Key word : Elementary School Teacher, The Degrees of Understanding of Psychological Test, The Degrees of Utilization of Psychological Test